

전남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선도

내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도입 준비 '착착'

유은혜 장관, 목포 지역 유치원 방문 의견 청취

전남교육청이 2020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 전면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2020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전남도내 110개 사립유치원 중 12개 원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도교육청은 2020년 전면도입에 대비한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전남교육청 산하 문태소리유치원(목포)을 방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시스템 사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9년 에듀파인 도입대상 유치원(유아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현장방문에서 유 부총리는 유치원 측의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에듀파인 사용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립유치원 원장 및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남도내 공·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가 참석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 교육여건 조성에 힘써 주기를 희망했다. 또,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식 아래 유치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 및 현장 안착을 통해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유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학교로서 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공동체가 유치원 교육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견 등을 숙고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 투명한 회계 운영, 회계 관련 연수 및 컨설팅 등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경양초, 현)광주예술고 부지 2023년 이전

광주시교육청이 경양초등학교 교를 복구 운암동 현)광주예술고 부지로 2023년 3월에 신설대체 이전 재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양초등학교는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의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과 취원 대상 유아를 원활하게 배치하기 위해 47학급(초등학교 43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 규모로 현)광주예술고 부지에 신축될 예정이다.

경양초등학교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운암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일조권 및 학습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이설 요구가 있었다. 광주예술고가 복구 매곡동 구)전남교육청 부지로 2021년에 이전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3년여 동안 공

사기간 중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대표 회의, 학부모 전체 설명회,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등 학부모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광주예술고 부지로 이전 재배치하고, 경양초 학생들을 인근학교인 광주운암초, 동림초로 분산배치 결정했다.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20년에 이주 및 철거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운암3단지 내에 있는 경양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학생 안전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양초가 신축되기 전까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시휴교를 하고, 휴교기간 중 경양초 학생들은 인근학교인 광주운암초와 동림초 등으로 분산배치될 예정이다. 2020학년도에 경양초 학생들이 분산 배치되어도 학급당 인원이 25명 내외로 적정학급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다문화 감수성 제고 추진

영양(교)사 대상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 진행

광주시교육청이 24일 광주시장의 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학생 건강과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영양(교)사'를 위한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 전체학교 영양(교)사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

되었으며,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양(교)사의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하고 학교 급식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문화학생 현황 및 특성 이해, 다문화학생의 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학교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문화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영양(교)사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학교급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다함께 행복한 다문화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는 교육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은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인호 기자

화순교육지원청, 초등 수업선도교사 2차 수업공개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화순초, 이양초, 아산초에서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수업선도교사 2

차 수업공개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업선도교사의 수업공개는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관내 참관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관내 6명의 수업선도교사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온 학생중심수업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자 열정을 쏟았다.

국어를 비롯하여 5개 희망 교과 수업을 참관한 교사들은 수업자, 지도위원, 참관위원들과 함께 수업자를 격려하고 서로의 머리를 맞대며 수업 나눔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수업성과 함께 교실수업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공개수업이 열린 아산초의 박명식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

성화되어 수업 혁신을 위해 꾸준한 연수와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학교라 소중한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공개수업을 참관한 최원식 교육장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과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간소해가고 있다"며 "학생참여형 수업을 실천해가며 즐겁고 배움이 있는 교실을 만들어가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